

LDPE

시장현황

94년 국내 LDPE(LLDPE포함)시장은 안정적인 수급상태를 유지했다.

LDPE시장은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용도의 다양성 및 안정적인 수요확보와 고압 등 기술적 요인과 환경 등으로 인해 업계에서도 신·증설을 꺼리고 있다. 투명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반면, 부가가치가 낮아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1000여개에 이르는 가공기업들도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해 도산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LDPE 레진기업(6개기업)에서는 신·증설보다는 기존의 생산능력을 시황에 따라 조절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국내 LDPE 수급동향 (EVA 포함)						(단위 : 1000M/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예상)	
	수 량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생 산	500	783	56.6	914	16.8	1,021	11.7	1,100	7.7
내 수	346.8	519.0	49.7	555.0	7.0	633.0	14.1	650.0	2.7
수 출	122.6	280.0	128.4	340.0	21.6	339.0	▽0.2	350.0	3.2
판 매 계	469.4	798.0	69.9	895.0	12.1	972.0	8.6	1000.0	2.9
수 입	47.8	17.0	▽64.4	19.0	12.1	17.0	▽10.5	19.0	11.8
내 수	445.8	536.0	20.0	574.0	7.2	650.0	13.2	670.0	3.1

자료: CRI

국내 LDPE(LLDPE포함)시장은 90년대 초반까지 한화종합화학이 독점체제를 유지했으나 90년 석유화학투자 자유화 조치 이후 LG화학, 유공(LLDPE)의 참여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후 91년에는 삼성종합화학 및 현대석유화학의 합성수지 부문 신규진출과 93년 대림산업의 신규참여로 6개기업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들기업의 신규참여로 한화종합화학 등 선발기업은 수성의 위치에,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등은 신규개척의 토대 마련을 위한 전략 등으로 경쟁이 치열, 가격이 90년 톤당 73만원선에서 93년 최저 40만원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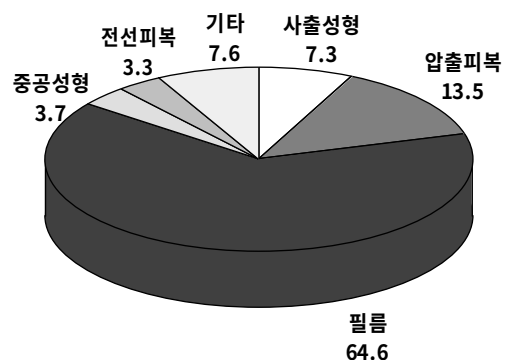
특히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은 무분별한 판매정책 및 가공기업의 도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DPE 생산동향(기업별)					(단위 : M/T, %)
구 분	생산능력	수 량			비 고
		1993	1994	1995(예상)	
한화종합화학	251,000	330,000	340,000	360,000	9만4000(LLDPE)
L G 화 학	120,000	137,000	135,000	137,000	
유 공	100,000	96,000	70,000	80,000	
삼성종합화학	92,000	81,000	80,000	80,000	
현대석유화학	160,000	180,000	180,000	180,000	10만톤(LLDPE)
대 림 산 업	115,000	63,000	100,000	110,000	
계	838,000	887,000	905,000	947,000	

자료: CRI

LDPE의 수요구성비(1994)

(단위 : %)



수급에 있어서도 88년에는 공급 36만톤, 내수 35만7000톤으로 공급과잉률이 0.9%에 불과했으나 90년 3.4%, 91년에는 신규기업 참여로 공급과잉률이 23%를 상회하게 된다.

93년에는 생산 91만4000톤에 내수 57만4000톤으로 34만여톤이 공급과잉현상을 보여 잉여물량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94년에는 100만톤 생산에 수출 34만톤 내수 65만톤의 비중을 보였다.

이같은 수급관행은 9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으며 수출량도 40만톤 미만에 머물고 있어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수출처리부담이 적고, 주 용도인 농업용에도 수요신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현황

국내 LDPE 생산기업은 한화종합화학이 Dow의 기술을 도입, 여천과 울산에 각각 16만5000톤과 8만5000톤의 공장을 설립한데 이어대림산업이 700억원을 투입, 영국 ICI의 기술을 도입해 93년2월 여천에 10만톤을, LG화학이 CDF Chemical(프)의 기술을 도입해 90년 800억원 투입, 여천에 12만톤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공장은 V-LDPE(2만5000톤)와 LLDPE 겸용 생산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삼성종합화학이 91년7월 Mitsubishi의 기술을 도입, 서산에 10만톤 공장을, 현대석유화학이 BASF의 기술을 도입해 서산에 13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LLDPE는 한화종합화학이 86년 UCC의 기술을 도입, 230억원을 투자해 여천에 9만4000톤 공장을 설립했으며 대림산업이 Himont 기술을 도입해 94년 10만톤(투자비 600억원)을, 유공이 90년 Dupont의 기술을 도입해 480억원을 투자, 울산에 10만톤을, 삼성종합화학이 BP Chemical의 기술을 도입해 94년 서산에 9만톤을, 현대석유화학이 Stamicarbon의 기술을 도입, 서산에 8만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업별 생산현황을 보면 한화종합화학이 LDPE 25만1000톤, LLDPE 9만4000톤 등 34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93년 33만톤, 94년 34만톤을 생산했으며, 95년에는 36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12만톤의 생산능력대비 93년 13만7000톤, 94년 13만5000톤을 생산했으며 95년에는 13만7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공은 94년 7만톤에서 95년에는 7만5000~8만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어 다른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공은 LLDPE와 HDPE의 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상황에 따라 LLDPE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95년에는 LLDPE 생산에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삼성종합화학이 9만2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8만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석유화학이 16만톤의 생산능력대비 최고 18만톤까지 생산·판매하고 있고, 대림산업이 LLDPE 10만톤, LDPE 11만5000톤 등 21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10만~11만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LDPE의 용도는 94년기준 사출성형 7.3%, 압출피복 13.5%, 필름 64.6%, 중공성형 3.7%, 전선피복 3.3%, 기타 7.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